

COM Graduation 2021 -- Undergraduate Celebrations Video

Translated by Youn Kim

(on camera) Christine Harold

Hello Class of 2021! Welcome GRADUATES! Welcome FAMILIES, FRIENDS, and loved ones! My name is Christine Harold. I'm a professor and Chair of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m delighted to be among the first to congratulate you at this amazing time for each of you personally in a historical context like none we've ever seen.

안녕하십니까, 2021년 졸업반 여러분! 환영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가족, 친지,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해롤드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교수이자 학과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국에도 이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 한분 한분을 가장 먼저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It's been such a pleasure to have some of you in my classes over the years, or to see you in the hallways of the Communications building, to hear your speeches in Red Square, hear about your internships, your awards, your goals, and your post-graduation plans. For my colleagues and me, it has been a privilege to have all of you as members of our Communication community, especially this year. Your resilience, compassion, persistence, and good humor in the face of a world seemingly turned upside down has been incredibly inspiring.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지난 몇년간 제 수업에서 뵈 수 있어 기쁩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부 빌딩 복도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레드 스퀘어에서 했던 연설들, 인턴십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상 받은 것들, 목표들, 그리고 졸업 후 계획들을 듣기도 했죠. 저와 제 동료들은, 특히 올해, 여러분 모두와 커뮤니케이션 학부 공동체로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린 세상속에서 여러분의 굳센 의지, 배려심, 끈기,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여유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I know this isn't the kind of ceremony you and your loved ones would have chosen. Nor would we. Like your families, we were all looking forward to those handshakes, high fives, and hugs as you walked across that stage to accept your diploma. Although celebrating remotely may not have been anyone's first choice, I guarantee you that this is definitely a day we'll all remember.

오늘 이 행사가 졸업생 여러분과 가족 친지분들이 고대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여러분 모두가 무대에서 졸업장을 받으며 악수, 하이파이브, 포옹하는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멀리서 축하하는 것을 바라진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 우리 모두가 기억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I hope that your time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nd in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has lit a fire in you that will carry you into your next adventure, be that the career of your dreams, advocating for causes you care about, cultivating meaningful relationships, or leading others toward a more just and equitable future.

워싱턴대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보낸 시간이 여러분의 심지에 불을 붙였으며 다음 모험으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꿈꿔온 커리어, 여러분이 온 맘 다해 지지하는 것들,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 또 다른이들을 더 정이롭고 평등한 미래로 안내하는 것, 이 모든 가치들을 말이죠.

That said, this year has been hard. And it's possible the flames of your ambition feel tentative right now and perhaps you're even feeling a bit burned out. If that's the case, please know this is temporary and that you're not alone. If that's you, I encourage you to give yourself space to breathe, to rest, and to reflect. Fires need oxygen to grow, and I assure you if you nurture the embers that are undoubtedly within you, inspiration will come knocking soon enough.

그럼에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야심찬 불꽃이 아직 망설여질 수도 있고, 심지어 벌써 바닥 난 것 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란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이게 당신 얘기라면, 잠시 숨을 돌리마시고, 쉬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해주길 바랍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마음 속 장작을 잘 보살피고 키운다면, 머지 않아 영감이 찾아와 노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Perhaps your fire is burning bright and full of energy, but feels somewhat directionless now, and at the mercy of winds that are beyond your control. If that's you, you are also not alone. I encourage you to see if you can quiet yourself from time to time and stoke the coals of your own wisdom. Fires need boundaries, or containers to remain healthy rather than destructive. Keeping yourself on your chosen path requires discipline. Not a harsh, inflexible discipline that judges and punishes, but a consistent, reliable structure—of good habits, focused work, and supportive relationships—that provide a practical architecture that channels you toward your goals.

어쩌면 여러분의 불은 에너지로 가득 차 밝게 타오르고 있는데도, 지금은 무언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바람에 흔들려 손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은 고요한 가운데 당신만의 지혜의 석탄에 연료를 채우길 응원합니다. 불도 한계선이나 태울 수 있는 화로가 있어야 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선택한 길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가혹하거나 융통성 없이 판단하고 벌주는 훈육이 아닌,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훈련 -- 좋은 습관들로 이루어졌으며,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이끌어내는 --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로 정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를 제시해 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Fire metabolizes. The more we tend to our own inner home fire, the less susceptible we are to the whirlwinds of information, opinions, hot takes, hype campaigns, or trending this and viral that, of other people. We can consume these materials, but we can process them critically, honing our capacity to discern the useful from the un-useful, the kind from the bigoted, the truth from the fiction.

불은 스스로 변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불에 전념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이들의 정보나 의견, 지극히 주관적인 논평, 과장광고, 유행, 바이럴과 같은 회오리바람에도 끄떡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고 이용하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어야 하고, 불필요한 것과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하며, 편견들 속에서 친절을, 소설 속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Finally, fire also warms. It draws people together in community. For so many of us, this has been a year of isolation, of distance, and of remote-everything. But we have also found novel ways to come together and to enjoy the warm glow of fellowship, shared learning, and collaborative work. Whatever the platform, virtual, IRL, or otherwise, I encourage you to continue fostering y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connections from a place of warmth and authenticity. We've learned that we need each other more than we may have realized, and that despite how it might sometimes feel, you're not alone. We are proud to call you graduates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we invite you to bask in the warmth of this community for many years to come.

마지막으로, 불도 따뜻하기 마련입니다. 불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한데로 모아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는 참 고립되었고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목이라는 따뜻한 불빛 아래 함께 배우고 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상에서든지 현실에서든지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여러분이 따뜻하고 진실된 곳에서 개개인의 그리고 프로로써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길 응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고, 간혹 여러 감정들이 교차할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란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워싱턴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 속 우리 공동체의 따뜻한 불을 계속해서 누리고 피워나가길 소망합니다.

We're happy for you. We believe in you. And we can't wait to see what you do next.

Congratulations!

기쁜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축하합니다!

(on camera) Christine Harold

It is now my great honor to introduce today's commencement speaker, selected by a group of our own Communication graduates. Dr. Vin Gupta of the UW's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has, this year, become a household name to the millions of us who have turned to him for the clear and sound explanations he has offered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 on outlets such as CNN, MSNBC, the Today Show, Al Jazeera, CBS News, and more. Dr. Gupta is a Harvard-trained Critical Care Pulmonologist, and in addition to his work for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e serves as the current Chief Medical Officer of COVID-19 Response for Amazon and served as health and COVID response advisor for the Biden-Harris transition team and for the Seattle Seahawks and the Seattle Mariners.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생들이 직접 택한, 오늘 졸업식의 연설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워싱턴대학 보건 지표 평가 연구소 빈 굽타 박사는 올해 CNN, MSNBC, 투데이쇼, 알자지라방송, CBS뉴스 등 세계 각지 방송사들의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명쾌하게 설명하시며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굽타 박사는 하버드 출신의 중환자실 호흡기내과 전문의시고, 워싱턴대학 외에도 현재 아마존에서 코로나19 의료 총책임자로, 또 그동안 바이덴-해리스 인수인계팀, 시애틀 시호크스와 시애틀 마리너스팀들의 코로나 자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Although I'm not sure Dr. Gupta ever dreamed that his expertise as a pulmonologist would thrust him into the national spotlight as one of our most trusted sources on public health, he has stepped into the role brilliantly. He communicates with a clarity of purpose, an authority earned through an esteemed body of work, and with a passionate and (com)passionate commitment to ensuring that scientific fact and evidence-based truth prevail in a time of uncertainty, political posturing, and rampant disinformation.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신 굽타박사님께서 이렇게 공중보건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보원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걸 한번이라도 상상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사님은 그 역할을 훌륭하게 돕고 나셨습니다. 박사님은 명확한 목적을 전달하고, 신뢰받는 내용들로 권위를 지키며, 열정적이고 사려깊은 헌신으로, 불확실한 정치적 가식과 가짜정보가 난무하는 시기에 과학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진실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힘써오셨습니다.

As we begin to take our first steps toward emerging from the worst of this pandemic, at least here in the U.S., the information and insights Dr. Gupta continues to offer, are as important as ever. Dr. Gupta's advocacy for sound public health information and policy demonstrates the crucial role that good, ethical communication plays in our public sphere. As we have seen this year in so many ways, thoughtful, factual, empathetic communication literally has the capacity to save lives. I am incredibly grateful to Dr. Gupta for making the time to speak to us today and I am honored to turn the virtual mike over to him now. Please join me in welcoming Dr. Vin Gupta.

우리가 이 최악의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한 발짝 다가가려 하는 지금, 적어도 여기 미국에서는, 굽타 박사님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통찰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굽타 박사님의 타당한 공중보건 관련 정보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옹호는 공공권에서 올바르게 도덕적인 소통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옹호 수없이 지켜보았듯이, 사려깊고, 사실에 근거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은 말 그대로 삶을 구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실 굽타 박사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상 마이크를 박사님께 넘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빈 굽타 박사님을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on camera) Dr. Vin Gupta

Hi everybody. It's an honor to be here to speak to you on your special day -- one of the most special days in your life -- your graduation day from colleg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날들 중 하나인 대학교 졸업식 날에 말이죠.

I'm really excited to be able to talk to future leaders in communications -- whether you're going to be the future press secretary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a future president, or a public-facing spokesperson for a major company, or a journalist, you are entering a field that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than it is right now -- and frankly for the next several years, if not decades: 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이끌어 갈 미래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 여러분이 장차 미국 정부의 대변인이거나 대통령이 되어 있든지, 혹은 유력 회사의 대외 담당 대변인, 또는 기자가 되든지, 여러분은 지금 그 어떤 때보다 너무나 중요해진 분야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최소 몇년간은 그러할 분야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How we communicate to the public, what we say, how we say it, that has been -- as the last 16 months of this pandemic has shown -- there's frankly been nothing more important than effective communication; clear, crisp, evidence-based -- coming from effective messengers.

우리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 지난 16개월간의 전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보여 주었듯이 -- 명확하고, 간결하며, 증거에 근거한, 그리고 좋은 전달자로부터 전해진 효과적인 소통,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I'm super excited for all of you to be entering this space;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I know college has been unexpected for all of you, especially going through a socially distanced senior year -- probably parts of your junior year -- so a lot of unexpected twists and turns, but you are going to be rewarded with a job market that's going to be robust; people craving your skill sets, opportunities through the roof! To that end, I'd like to talk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I've learned being on various platforms, both locally and nationally, talking to people about complicated issues like Covid, and how they can keep themselves and their loved ones safe.

여러분 모두가 이 분야에 들어선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대학생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걸 압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지내야 했던 지난 졸업반 한 해와 약간의 3학년 시절 동안 많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전환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탄탄한 고용시장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고, 기회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저는 제가 국내외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배운 것들과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I'm going to present a few strategies here that I hope might be helpful, and I encourage you to please reach out to me at v gupta v-g-u-p-t-a at uw.edu -- v-gupta -- if you have any questions, because it's impossible for me to get across all these points in just a few minutes. If you have questions, if you're looking for a mentor, for somebody to help just be a guidepost -- I've had a lot of mentors help me, so I definitely want to pay it forward to the extent I can. Please do reach out.

여기서 저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v gupta v-g-u-p-t-a @ uw.edu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몇분 안에 다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멘토를 찾고 있고, 어떤 분은 삶에 이정표가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 할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수많은 멘토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꼭 찾아주길 바랍니다.

To that end, these are the strategies that I'd like to discuss today -- in a very concise period of time: confidence over certainty; providing actionable advice; meeting people where they are; leading with storytelling; channeling empathy; and staying helpful.

이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략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성보다는 신뢰감을 택할 것; 실행 가능한 조언을 제공할 것; 사람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이해해보는 것;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통을 이끄는 것;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 그리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남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m going to lead with confidence over certainty. I wanted to first discuss this concept of confidence over certainty, and why I think it's important for all of us to get this right, and to understand exactly what I'm referencing here: which is the way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the vaccine. We've been trying to communicate scientific-certainty, and yet what we really needed to communicate was just confidence -- what are we confident about?

먼저, 확실성보다는 신뢰감을 택하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신에 관한 얘기를 할때 많이 나온 말인데요, 우리는 과학적 확실성에 대해 전달하려 했지만 우리가 진정 전했어야 하는 것은 신뢰감이었습니다 -- 우리가 될 신뢰할 수 있을까요?

And you'll see this -- this is from the New York Times, this headline about AstraZeneca being 79% effective -- and I took an issue with this. I tweeted about this on social media and about how, fundamentally, this was not the right headline for the moment. Effectiveness is, in my view, what we're confident about. Scientific effectiveness -- what does that actually mean? It means: "does the vaccine keep you out of the hospital?" In a real-world setting, that's actually the definition of what we mean when we say, "vaccine effectiveness."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9%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헤드라인에 대해 저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헤드라인이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는지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학적 효과 --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백신이 당신을 병원을 찾지 않도록 해줄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백신의 효과"에 대해 얘기할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Vaccine efficacy is: "does the vaccine prevent mild illness, asymptomatic illness, or does it keep you out of the ICU?" And yes, AstraZeneca was 79% efficacious, but it's actually a hundred percent effective at keeping you out of the hospital. And yet a major news outlet, and many others -- I'm just picking on the New York Times here -- a major news outlet said it was 79 effective. It's actually 100% effective, and that's the message we needed to get out to people, and we didn't.

백신유효율이란: "이 백신이 경증, 무증상 감염을 예방해주는가?, 또 중환자실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는 79%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가에 대해 질문한다면 여기에는 100%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말한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주요 언론들은 이를 79%로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상 100% 유효했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야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Why does this matter? You know all of you are going into a space that requires a skill set -- it requires an important skill set where you understand nuance, but only communicate what's necessary. So, you understand complexity, but you don't communicate complexity; you communicate what others need to know -- to get a point across, to inform people. That's the point, at least, of scientific communication. And effective scientific communication (and this is how some scientists like to talk about the vaccines, for example: "well, uh, Sputnik is 92 effective against the b117 variant but then it's only 43 effective against the b1351 variant.")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두는 이제 특정한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를 잘 이해하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잡성을 이해하면서도 이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전달해야 하죠 -- 본론을 말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적어도 과학적인 소통, 효과적인 과학적인 소통에서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과학자들이 백신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음, sputnik이 b117 변이 바이러스에는 92% 효과적이지만 b1351 변이 바이러스에는 43%밖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It doesn't make any sense. It's really confusing. We've seen some people on national platforms try to actually walk people through this data in real time and all it does is confuse people. We really need to focus in on what's critical -- to communicate to people what we're confident about, and not focus so much on scientific certainty, which is this table:

말이 안 되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공중파 방송에서 몇몇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설명 하는 것을 봤고, 그들은 그저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우리가 자신감있게 얘기할 수 있는것을 전달하고, 과학적인 확실성 같은 것에만 너무 힘을 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이 표처럼 말이죠.

This is really important. Here, when it comes to how we think about effective ways of communication -- and I wanted to bring this slide along because I think this is really a helpful way to think about effective communication -- sometimes it's not me yapping to you, or you talking to other people, but it's effectively utilizing social media, or it's effectively utilizing graphics and visuals to convey something that might take a hundred words.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효과적인 소통에 대해 이야기할때 — 참고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택한건 이게 효과적인 소통이 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구요, 가끔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끄럽게 떠들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백날 얘기하는것 보다도, 수백개의 단어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래픽과 시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What I'm trying to convey here, and I posted this on Twitter: these are CT scans from a patient of mine, and the patient on the right had severe pneumonia from Covid-19. The lungs on the left are just normal lungs -- those are healthy lungs -- and the point was, "well, the vaccines, ALL the vaccines in the United States are nearly 100 effective at preventing your lungs from looking like the lungs on the right." It's a lot easier to show it than it is to say it, especially in a space where politics and division and hesitancy reign. Sometimes you just need to level-set with a picture.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트위터에도 올렸었는데요, 이건 제 환자 중 한분의 CT를 스캔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환자분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폐 사진들은 일반적인 건강한 폐의 모습이고요 — 저것들이 건강한 폐고—이것들을 보여주는 목적은 “음, 백신, 미국에 있는 모든 백신들이 오른쪽 폐처럼 되버리는걸 막는데 거의 100% 효과가 있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의구심이 증폭하는 요즘 시기에 말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그림으로 모두가 동일선상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And so, when we're talking about confidence versus certainty -- about what you should be communicating to people in a complex space -- use every medium available to you. Don't just talk; don't just assume the written word or the spoken word is going to be effective enough. Use every tool available to you: video, compelling footage, or graphics -- because that can really get the point across effectively.

우리가 확실성과 신뢰감 중 하나를 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 복잡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글이나 말로 충분히 통할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세요: 비디오, 좋은 영상, 또는 그래픽까지 —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핵심입니다.

I won't spend a ton of time here, but one key piece of trust -- and something I try to do whenever I have a platform -- is to build as much trust as I can with the invisible audience that I know might be watching. And depending on what direction you take your career, a part of that's going to be giving people actionable advice. Of course, if you're a journalist reporting the news, you have to stay within the boundaries of what your job description is, but I do think that there's an ability for all of us in the space of communications to give people actionable advice -- recommendations on what they can do to keep themselves safe. In this instance, where to seek out therapy.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신뢰의 가장 핵심은 — 제가 모든 플랫폼에서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 보이지 않는 청중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실천할만한 조언을 주는 것이 될수도있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의 길을 간다면, 기자로써 주어진 직무 내용에 한하여 일을 해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 내에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실현가능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권고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되겠죠.

I didn't always do this -- I was initially the person that would go on air and talk about how bad things were -- and I recognized that at some point that was weakening my ability to gain the trust of the individual on the other side of the screen; they didn't want to just hear bad news... they needed help, they needed advice to stay safe. And so, democratizing access to information -- that either might be complex or hard to understand -- would give people useful information (to seek out therapies, in this case; monoclonal antibodies). This is a good way to build trust because then people say, "well he's looking out for me; she's looking after me."

제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 저도 처음에는 방송에 나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좋은지 얘기했습니다 —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크린 반대편에서 절 보고있을 분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들은 그저 나쁜뉴스를 듣고 싶었던게 아닌 도움이 필요했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것 -- 아무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일 지라도 -- 그렇게 하는것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것입니다. (이 경우에선 치료법을 찾는것이겠죠; 모노클론항체). 이것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날 보살펴주는구나, 그녀는 나를 신경써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And there are information asymmetries that exist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the space of healthcare, where there is information that's available only to those with Internet or those who understand complex language, or who know where to look. This isn't just Covid and monoclonal antibodies -- there's many paradigms for this. The more that you focus in on addressing these asymmetries and access to good information, I guarantee you that's going to allow you to build a greater viewership, or an audience that might be reading or listening to your work, because it's going to cause them to trust you even more.

전세계 각지에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들이나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 또는 어떤 것을 찾아야 할지 아는 이들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모노클론항체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려 할 때, 시청률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분의 보도를 읽거나 들을 청중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청중이 당신을 신뢰하게 할 것입니다.

Another key piece of building trust is trying to meet people where they are. Here is a picture of a group of us helping the Mariners do a safe restart at T-Mobile Park. And one of our guiding principles was understanding that people were going to go to the ballpark, they were going to travel, they were going to do things that, for many months, we were saying, "please don't." And it afforded an opportunity for us to continue to reach them -- these individuals who, for example, may not want to get the vaccine or were unwilling to wear a mask --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to say, "you can do this, but you can do it even more safely if you come vaccinated or if you continue to mask, and if you continue to distance." There was an opportunity to provide incentives so that people could do the right thing to protect themselves and others, while enjoying the things that they had long enjoyed doing. So again, meeting people where they are, and framing communications and terms that are recognizable to them (that are attractive to them), can help you achieve your own aims.

신뢰를 쌓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사람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우리 중 몇몇이 티모바일 공원에서 시애틀 매리너스 선수들이 안전하게 재기할 수 있게 돕는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의 지침 중 하나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고, 여행을 가고싶어 했으며 우리가 지난 몇개월간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들을 -- 백신을 맞거나 마스크를 쓸 생각이 없었어이던 이들에게 -- "이걸 해도 됩니다만, 당신이 백신을 맞거나 계속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실천한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즐겨온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면서, 소통과 언어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그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This is another picture of a colleague of mine with the Mariners in the clubhouse talking to the players, and one of the strategies that I try to use -- whether it's talking to professional athletes or workforces -- is leading with storytelling. And I can't tell you how important this strategy is in trying to reach people, and trying to make something real, and trying to build emotional vulnerability. Those are key tactics that you have to lean into, especially when some of you are going to be delving into complex spaces like public health communications, or politics and political communications. Telling stories is a great way to make something feel real to the person who might be listening to you, who's resistant to hearing you and your upshot.

이 사진은 제 동료 중 하나가 클럽 회관에서 매리너선수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입니다. 제가 쓰는 전략 중 하나는 -- 프로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때에도 --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진짜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감정적 연약함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핵심 전략들이고, 특히 여러분들 중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복잡한 분야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은 당신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 뿐만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조차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I've tried to use social media to amplify (what I hope) is good information when speaking to younger audiences like yourself. I talk about how Covid is impacting young people -- not just citing statistics and finger wagging at you -- but citing specific examples and talking about them in real ways. It's not always going to work (it may not work for some of you listening to me right now), but it's better than just citing statistics and finger wagging, which is what I think often happens when you're trying to tell people what they should do for their own benefit; there's a lot of finger wagging that goes on, especially to younger generations. I'm sure a lot of you are tired of that, and so leading with storytelling is really vital.

저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왔습니다. 코로나가 젊은이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 이에 관해 그저 통계를 인용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하여 저는 상세한 예를 들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이 오롯이 전달 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제 얘기가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그저 통계나 인용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 얘기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세상은 젊은 세대를 많이들 나무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이미 지긋지긋하겠죠, 그렇기에 스토리텔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I had a chance to do this with our Seahawks recently... Kyle Fuller is one of their younger players who recently had Covid, and him and I were going back and forth about questions that he was having. He had concerns about getting the vaccine, and he posted about it on Twitter. I appreciated him doing it, but as with the Mariners or other workforces, if you lead with stories and you try to reach out... we talked a lot about other younger patients of mine (athletes, in some cases) who came down with Covid and who didn't get the vaccine, and then they started experiencing long-term symptoms -- and for some of these athletes they weren't able to get back on the field. Providing that type of context for Kyle was really helpful because his primary goal was: "I want to be ready for training so that we can be ready for Game One come the fall," and so that was really the kicker there for him: recognizing that he was vulnerable to longer

term impacts from his Covid infection if he didn't get the vaccine, because now we're recognizing that the vaccine can help mitigate these longer term potential symptoms.

최근에 저는 우리 시호크스 선수들과 이러한 시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일 폴러 선수는 최근 코로나에 감염된 젊은 선수 중 한 명인데, 그가 가진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백신에 대한 걱정을 했고, 그 심정을 트위터에 올렸었죠. 저는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제가 마린스 선수들이나 다른 동료들과 했듯이,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하고 다가가려 한다면... 우리는 제 환자들 중 젊은 환자들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그 중 운동선수도 있었죠)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 그리고 장기적인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이들까지...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다시 필드로 돌아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 카일에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주된 목표는 “다시 훈련하여 **Game One**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싶다”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장기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짐을 인지한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백신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know I don't have a ton of time with all you all, so I'm going to try to wrap this up. I did want to share that for my own training in Comms -- I had a chance to study Comms when I was towards the tail end of my medical school training -- this an example from Steve Jobs:

현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모든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공부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 제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 여기 스티브 잡스 님이 얘기했던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haven't heard his 2005 Stanford Commencement Address, I strongly encourage you to YouTube it at your first opportunity, because he's a maestro at storytelling and he uses a tactic called “the rule of threes,” where you divide your story or message into three parts -- you keep the message short and sweet, and you have one consistent message. In his case, it was “do what you love.” I really encourage you to listen to Steve Jobs and that commencement address, just as I would encourage you to listen to these two presidential addresses:

혹시 이 분의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당장 유튜브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스토리텔링의 귀재이면서 “세가지 룰”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나 메시지를 세 분야로 나누어서 -- 메시지는 간결하고 달콤하게, 그러면서 단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의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해라”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님의 졸업식 연설을 꼭 들길 권합니다. 다음 두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를 권장하는것처럼요.

They are master classes in how you demonstrate and convey empathy. Channeling empathy is going to be vital, especially for those of you in a spokesperson role for organizations, or for governments. This is such a critical skill, so I encourage you to watch President Obama's eulogy for Reverend Clementa Pinckney, and President Reagan's address to the country after The Challenger disaster back in the mid-1980s; incredible demonstrations of how a leader (of how a communicator) can demonstrate empathy in real, tangible ways. It's such an obvious strategy, you might think, but really hard to do and practice well.

이 연설들은 여러분이 공감을 보여주고 담아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최상의 교본입니다. 앞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 여러 단체들이나 정부 기관들에서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분들에게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 능력이며, 여러분이 오바마대통령의 클레멘타 핀크니 목사의 추도사를 꼭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중반 레이건대통령의 챌린저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도 꼭 봤으면 합니다; 이 연설들은 모두 지도자 (또는 전달자)가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보여준 놀라운 연설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전략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And then lastly, never forget to stay hopeful. All of you are going to be entering a world that's complicated, that's been traumatized by a major pandemic. We have issues across a range of other complicated topics, like social justice, access to voting rights, climate change, vaccine inequity, and vaccine apartheid -- but you're entering the workforce in a really complicated time that affords amazing opportunities for all of you, who are going to be leaders in communication. This is exactly the right time to enter the workforce in your chosen profession, but you don't want to forget that it's vital to stay hopeful. It's critical because nobody -- just like I was talking about earlier when it came to giving actionable advice -- nobody just wants to hear doomsday scenarios; they want help, and they want hope, so always remember to message on that.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아주 어렵고, 최악의 팬데믹으로 큰 충격에 빠진 세상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복잡한 주제들, 이를테면 사회 정의, 투표권 부여 문제, 기후 변화, 백신 불평등, 그리고 백신 인종차별과 같은 이슈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놀라운 기회들을 얻어낼 수 있는 분야로 들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른 직종으로 들어서기 아주 적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희망을 품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희망을 품는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 조금 전 제가 실행가능한 조언을 하라는 얘기를 할때 도 언급했습니다만 -- 어느 누구도 우울한 시나리오만 듣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과 희망을 원하기에, 우리는 늘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And, at least in communications for health-related issues, there's going to be more opportunities for all of you in ways in which there were not opportunities for folks like myself, coming up the ranks. There are going to be some incredible opportunities available for you to really sink your teeth in to; crisis communication seminars, like this one that I'm leading at The Aspen Institute, are just one example of a greater recognition for better communication capabilities across a range of different sectors in society, including healthcare.

최소한 건강 관련 문제들에 관한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례없는, 특히 저의 세대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몰두해볼만한 놀라운 기회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스펜 인스티튜트에서 이끌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역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갈구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I think that, now more than ever, we've realized that we need more communicators in the public health space. It's been a bleak last 16 months, but you are going to be the leaders that guide us through future crises, future epidemics. We need more people like you. There's going to be a job market out there that's going to be craving your skill sets; younger people that are mission-oriented, that have the right skill sets to be able to communicate complex topics to the lay public. I'm excited to watch all of you grow and to learn from you. I'm here if you need any help; v gupta v-g-u-p-t-a at uw.edu.

지금 공중 보건 분야에서는 전달자를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했던 지난 16개월이었습디만,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신종 전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같은 리더들이 더 필요합니다. 고용 시장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원할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잘 알고 있는 젊은 인재들, 대중 앞에 난해한 주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생각에, 또 여러분들에게 배울 생각에 가슴 벅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v gupta @ uw.edu 입니다.

Congratulations! Enjoy this day and your accomplishments that are yet to come. I'm really rooting you guys on. Have a great day.

축하합니다!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결실들까지 즐기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on camera) Christine Harold

Hello again! Thank you, Dr. Gupta.

다시 인사드립니다. 굽타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Finally, I'd like to introduce my dear colleague Caley Cook, who in addition to being a beloved teacher in our journalism program, also serves as our Undergraduate Program Chair. This is an incredibly challenging role, which involves curriculum planning, managing the applications to our major, and much, much more. I'm so grateful to have Caley's expert administrative prowess and easygoing personality in this important role.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소중한 동료 케일리 쿡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사랑받는 교사이시면서 학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는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 전공 신청서들을 관리하며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놀랄만큼 어려운 직책인데요. 전문성있는 행정가로서의 기량과 수더분한 성품으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케일리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n top of all this, Caley is an award-winning journalist and documentary filmmaker with an impressive and wide-ranging body of work covering topics from crime, the courts, sports, music, and theater. Welcome, Caley.

이외에도, 케일리씨는 수상에 빛나는 저널리스트이자 범죄, 법학, 스포츠, 음악, 연극 등 인상 깊고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는 작품들을 만들어온 다큐멘터리 감독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케일리씨.

(on camera) Caley Cook

Congratulations class of 2021.

축하합니다, 2021년 졸업반 여러분.

While I'd rather be talking to you in person, stretched out on the sunny quad with the cherry blossoms supervising overhead, I am honored to be able to speak to you via video this year.

직접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햇살 좋은날 광장에서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올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께 말씀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Your accomplishments deserve recognition, a spotlight, the celebratory energy equal to the years of work you've put in to get this far. You are graduates. And we see you.

여러분의 성취는 인정받고 주목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여기까지 오는 데 몇년간의 노력에 걸맞는 축하와 환호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Nothing ever seems poignant enough to fully recognize the kind of effort one expends to get to where YOU are now.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수없는 가슴 뭉클한 노력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As faculty, we are there with you in the trenches each quarter. In the lectures, the office hours, the essays, the exams, and on the other side of those long study nights. We see you struggle and sometimes fail, only to come out the other side more wise, patient, and informed. We saw

your curiosity as you tackled new ways of thinking, new methods, new challenges. We saw your fears and your doubts turn into confidence and mastery. We saw you ace that quiz. We heard you ask the hard questions. We saw you triumph. We saw you look back on your quarter, overflowing with new knowledge.

학부 교수진으로써, 우리는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면담 시간, 에세이들, 시험들, 그리고 수많은 밤을 지새 공부하던 날들까지 여러분이 분투하고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거쳐 더 현명하고 인내하며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죠. 우리는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의 전환들과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과 씨름하며 보여준 여러분의 호기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두려움과 의심을 자신감과 속달로 탈바꿈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 시험을 완벽하게 치루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승리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으로 넘쳐 흐르며 지난 학기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We. See. You.

우리는. 여러분을. 봅니다.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know that we bore witness to your fight: for that dream internship, for understanding, for inclusion in academia, for change, for kindness, and for a world where we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We want you to know that we see you and we'll remember all the ways that you made your community, your university, and your world a better place.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분의 건투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꿈꾸던 인턴십을 위해, 이해를 위해, 학계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를 위해, 친절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맞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Many of you are embarking on a journey into the professional world at (what we hope) is the tail-end of a global pandemic, and you'll need that "fight" to make your way. Hopefully, you learned about positive resilience here at UW, but you've always had the tools to make a place for yourself, because you got yourself here.

여러분 중 많은 분은 이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막바지에 (그러길 바랍니다) 이른 지금, 전문가가 될 여정에 승선하는 중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그 "싸움" 이 필요할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워싱턴대학에서 긍정적인 회복력에 대하여 배웠길 바라면서도,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공간을 남겨둘 도구들도 갖고 왔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끈 것은 여러분 자신이니깐요.

To get to a special place like UW Comm, you conquered many obstacles. This class specifically. You have earned your spot on the podium.

워싱턴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처럼 특별한 곳에 오고자, 여러분은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반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강단 위 여러분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얻어냈습니다.

I'll miss this class. I have special memories of teaching so many of you and hearing your own stories.

저는 올해 졸업반 여러분들이 그리울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가르치며 이야기를 들었던 특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I'll remember one graduate's story of pushing to carve his own path in sports journalism. I'll remember him agonizing over each word, pushing to capture the drama of the touchdown, the pain of the playoff loss, and the triumph of the ninth-inning double play. I'll remember how he

worked so hard to tell stories that mean so much to him and to thousands of readers who saw themselves in his coverage.

저는 스포츠저널리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한 졸업생의 이야기를 기억할것입니다. 단어 하나 하나를 절실히 고민하던 그의 모습, 터치다운 순간의 드라마를 포착하려 분투하던 모습, 플레이오프 패배에 고통스러워하던 모습과 9이닝 더블 플레이의 승리까지... 저는 그가 그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그의 기사를 보며 또 자신을 발견하던 수천명의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I'll remember another graduate's visit to my office hours. I remember because he told me what his education meant to him – how he was going to be the first college graduate in his family. He teared up when he told me the story of showing his mother that he'd made the dean's list. She hung the dean's list announcement on their front door. Facing OUT.

저를 찾아왔던 또 다른 졸업생도 기억할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에게 배움이 어떤 의미인지 — 그가 그의 가족 중 첫 대학 졸업생이 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등생 리스트에 뽑혔다고 전했던 것을 말해주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등생리스트 공지를 뽑아서 대문에 붙히셨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도록요.

And I'll remember another grad's story of service as she spent the equivalent of a full-time job each week volunteering to feed others. I'll remember her describing her shifts at the shelter and how a long-time resident would help her study each night as folks settled in.

그리고 저는 또다른 졸업생이 급식봉사를 위해 매주 풀타임 직업과 같은 시간을 할애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보호소에서의 교대근무 경험 이야기들과 그녀가 매일밤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한 장기 거주자의 이야기도 기억할것입니다.

I'll remember so many graduates just like you for the good you've done.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졸업생들과 그들의 멋진 이야기를 기억할것입니다.

One thing I know I regret from my college years is a singular vision – the kind of goal-oriented tunnel vision that eliminates superfluous information from your field of view. When you are sprinting toward a singular goal, it's easy to miss the stopovers on the way.

제가 제 대학시절에 후회하는 한가지는 하나만 바라보았다는것—목적만을 바라보았던, 이외의 것들은 제 관점에서 다 지워버렸던 그러한 시야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게되면 그 길목의 정류장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I couldn't tell you anything about my own college graduation 20 years ago – mostly because I didn't allow myself to pause, to consider, to experience that moment fully. I was already sprinting off to my next step, my new job, the love of my life, and my new title as a "professional person" in the real world.

20년 전 제 대학 졸업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드릴 수 없는것은—제가 제 자신이 멈춰가도록, 숙고하도록, 그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 큼니다. 저는 이미 다음 지점으로, 새로운 직업과 제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또 세상 속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타이틀을 향해서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I'm sure many of you know what I mean. You see your goal in the future and you're good at overcoming all the obstacles to get there – because we've trained you to be. But my wish for you would be that you would see not just the goal on the horizon, but the path you're taking to get there. Notice the details and the way it all feels right now. Don't miss the contours of this deeply meaningful moment.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제 뜻을 아실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목표를 보고 그것을 향해 가는 여정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저 수평선 너머 목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것들도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토록 의미있는 순간을 위해 돌아온 길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I hope you can remember the details of being a graduate in 2021 so that decades from now you can tell your family, or your chosen family, about all the ways it marked you as a person. All the ways it changed you and challenged you and made you better. We are living in a historic moment.

2021년 졸업생이기에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꼭 기억해서 훗날 여러분의 가족, 또 그때 꾸렸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당신의 모습을 만든 그 모든 여정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 do all the ambitious things like getting that dream job, and becoming famous, and leading the free world, and remedying injustice, and falling in love – but as you're sprinting towards those goals, those finish lines, look down and look around and notice all the details. At least to the extent you can. Notice the world as it is right now, and the way you are contributing to making it a better place.

그러니까... 꿈꿔왔던 직업을 갖는 것, 유명해지는 것, 자유세계를 이끄는 것,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야심찬 일들도 해내도록 하세요 --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들, 결승선들을 향해 달려가며 아래를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것 하나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적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지 주목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Being present in those moments is about refusing to consider the world trivial. It positions you to ask the big questions later, to see your life as a steady continuum of choices and adventures.

그 순간들에 온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은 세상을 뻔히 여기는 것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선택과 모험들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And someday, in 20 or 40 or 80 years, you'll look back and you'll remember these moments, like today, when you were present, and I hope that you will say: It was luminous.

그리고 언젠가, 20년, 40년, 또는 80년 후에, 여러분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순간, 여러분이 이 곳에 있었다는 것요. 찬란했다고 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We have never been so proud, and we are rooting for you.

이토록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Congratulations Class of 2021.

2021년 졸업반 여러분, 축하합니다.